

## 한전, 부하개폐형 삼상용 지상변압기 개발 추진

부하개폐형 삼상용 지상변압기가 개발된다.

한국전력은 '부하개폐형 삼상용 지상변압기 개발' 등 14개 '사내공모 협력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중소기업을 공모한다.

공모과제는 배전 5건, 송변전 6건, 안전분야 3건이며 선정업체는 과제당 3억원 이내에서 연구개발비가 지원된다.

한전은 8월 중순 협력연구개발 과제선정위원회를 열어 업체에서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심의, 업체

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전은 설비운영과정에서 취득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용화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과제를 공모했고 접수된 110건중 14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99년도 사내공모 협력연구과제 중소기업 공모에는 총 45개 업체가 몰려 2.8대의 1의 경쟁률을 보였다.(문의 : 송배전자재처 중소기업지원팀 (02)3456-4687/8)

### 〈 협력연구개발 대상과제 〉

No	분 야	제 안 과 제 명	문 의 처
1	배전	부하개폐형 삼상형 지상변압기 개발	02)970-3651 이수목 중앙교육원
2	배전	22.9kV 배전용 전자파 불량애자 검출기 개발	02)3456-4687 김광의 송배전자재처
3	배전	무소음 접점을 이용한 대용량 전자식 타임스위치	02)3456-5360 이재희 배전처
4	배전	소켓타입 대용량 보통전력량계 개발	02)3456-5362 김의열 배전처
5	배전	3상 몰드형 MOF 개발	02)3456-5364 신철호 배전처
6	송변전	회로탐색기 개발	031)832-3514 최진원 의정부전력소
7	송변전	23kV Static Condenser용 직렬리액터 건식화	033)741-5361 이백석 원주전력소
8	송변전	철탑, 철구 철제면의 도장 도막 두께 측정기 개발	053)770-3251 황성하 대구전력관리처

No	분야	제안과제명	문의처
9	송변전	전압안전도 계산 프로그램 개발	02)3456-4842 김성구 계통운용처
10	송변전	무선 유압감시 System 개발	02)3456-8043 김재승 송변전건설처
11	송변전	Digital Master Transducer 개발	042)865-5934 박병석 전력연구원
12	안전	크레인용 활선접근경보기 개발	032)880-1218 강정호 인천지사
13	안전	600V 방전고무장갑 개발	02)3456-8322 이승웅 안전관리팀
14	안전	특고압 초고압 검점기 개발	043)730-2352 서인석 신옥천전력소

## 한전, 절연두께 저감 154kV 케이블 개발

한전은 올 하반기부터 송전용 지중화사업에 포설하는 154kV 초고압케이블을 절연두께를 저감시킨 XLPE 사양으로 확대·사용한다.

154kV XLPE 케이블은 지난 '83년 국산화 이후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제조기술 향상으로 절연선용이 크게 개선돼 '98년 5월 절연두께 저감 XLPE 사양을 채택, 개발해 왔다.

한전은 이와 함께 절연두께를 저감시킨 XLPE

사양은 시험규격서를 제정, 시험한 결과 시공성·경제성이 뛰어나 연간 약 70억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확대·사용 배경을 설명했다.

절연두께 저감 XLPE 지중케이블은 현재 일본 유럽 등에서 개발, 사용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LG전선, 대한전선, 일진전선이 '98년부터 개발에 들어가 지난 6월 케이블 개발을 완료하고 한전 공급자격을 취득, 빠르면 이달부터 본격 사용케 됐다.

## 한전, 변전기자재 설치공사 경쟁도입

한전은 변전소건설의 주자재인 변압기와 GIS(가스절연개폐장치)의 제작과 설치공사를 별도로

분리키로 하는 변전기자재 설치공사 경쟁체제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계약·구매 등 이와 관련한 규정 및 지침의 정비작업에 착수했으며 보완대책이 완료되는 2001년부터 154kV급 이하 기기에 대해 우선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한전의 변전기자재 설치공사 경쟁체제 제도 개선 방침은 WTO 체제에 대비하고 정부의

중소기업진흥정책에 부흥키 위함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전은 변전기기의 조립·설치 및 정비기술의 저변이 확대되고 경쟁체제의 전환으로 국내 전기공사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배양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 한전, 37개 유망 전력벤처기업 선정

한국전력은 전력선을 이용한 인터넷 통신기술을 개발한 기인텔레콤 등 37개 유망 전력벤처기업을 선정, 특별 지원한다.

2000년도 한전의 유망 전력벤처기업에는 총 44개 기업이 응모했고 이 중 송변전 17개사 배전 18개사 정보통신 2개사 등 37개사가 뽑혔다.

발전부문과 원자력부문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대상에서 빠졌다.

유망 전력벤처기업은 하반기부터 내년말까지 1년 6개월간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지원 사업에서 우대 지원을 받는다.

특히 한전은 올해부터 유망 전력벤처기업에게는 기존 중소기업 기술개발 연구비의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강도를 높였다.

또 해외 박람회 관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100ppm 품질혁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한다.

한전은 유망벤처기업에 선정된 업체라도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거나 연구개발이 미진할 경우에는 지정을 즉시 취소할 방침이다.

한전은 '98년도부터 매년 유망 전력벤처기업을

선정, 연구개발비 지원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기술지도 시험설비 활용등 특별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한전은 6월 29일 본사에서 전력관련 벤처기업 대표자들과 전기공업계 관련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망 전력벤처기업 선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 송변전 : (주)케이디파워, (주)프로컴시스템, (주)우리기술, 다윈산전(주), (주)비츠로테크, (주)광명제어, (주)태광이엔시, 범아정밀(주), (주)유성계전, 한우테크(주), 신정우산업(주), (주)화신패우워, 하나제어기술(주), 디이시스(주), 한국차폐기술(주), (주)엔시스, (주)피에스디테크

▲ 배전 : (주)동남물산, 진광이앤씨(주), 평일산업(주), (주)제룡산업, 선일전기공업(주), 인택전기전자(주), 보성파워텍(주), 기인시스템(주), 동방전기(주), (주)영일전기, (주)창조정공, (주)EnE 시스템, 한보공업(주), 피앤씨테크(주), 화인계기(주), 용성전기(주), 기인텔레콤(주), (주)한창트랜스

▲ 정보통신 : 동진시스템(주), 송암시스템(주)

## 초고압 케이블 해외로 뺏는다

최근들어 전선업계 대기업들의 고부가가치사업인 초고압케이블시장이 점차 내수 위주에서 이탈, 해외로 옮겨 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초고압케이블시장이 침체돼 LG전선, 대한전선 등 대표적인 기업들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일원과 중동지역 등을 상대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내수와 수출 비중이 4:6 정도에 이른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현상은 생산설비는 최근 몇 년 동안 배가된 데다 최대 수요처인 한전의 전력계통화 사업이 사업구조조정 등 현안과 맞물려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154kV 및 345kV 지중화 사업에 깔

리는 물량이 연간 약 1,500억원 규모로 생산규모에 비해 미약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특수로 자리잡아왔던 인천 신공항 초고압 프로젝트도 대부분 마무리돼 고속철도에 들어갈 일부 물량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SOC(사회간접자본)분야를 비롯한 민수부문 기대 수요는 사실상 거의 고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4kV급에 진출한 일진전기공업이 올해 345kV급에도 참여할 방침이어서 내수 물량 수주는 비중이 더욱 줄어들게 될 전망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행은 빠르게 진전을 보일 것으로 내다 보인다.

## 고온초전도 마그네트 특허출원

대성전선, 한국전기연구소, 미국 MIT공대가 공동으로 지난 '97년부터 진행해온 新고온 초전도 마그네트 시스템 개발이 3년여의 연구 끝에 결실을 맺었다.

고체질소를 사용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온초전도 마그네트 시스템은 기존의 액체질소를 사용한 초전도 마그네트 시스템에 비해 효율이 2~3배 더 높고 경제성도 뛰어나다.

특히 이 고온초전도 마그네트 시스템은 여자상태에서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전원공급 없이도 일

정한 자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필요시 반복적으로 냉각 및 여자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구리선을 이용하는 상전도 마그네트나 영구자석에 비해 전기적인 손실이 없이 높은 자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데다 고온초전도 코일의 영구전류 특성을 이용해 전기를 자기형태로 저장이 가능, 초전도 발전기·초전도 모터·반도체 소자인 성장용 마그네트 등에 사용한다.

현재 이 고온초전도 마그네트 시스템은 개발과 함께 상용화를 위해 특허출원 중에 있다.

## 일렉21닷컴, 클릭하면 전기정보 ‘한눈에’

전기관련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전기인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운 일렉21닷컴(www.elec21.com)이 최근 다양한 콘텐츠 준비를 마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전기관련 사이트 중 대표적인 개방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일렉21닷컴(주)(대표: 양승환)이 모든 전기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기마당을 마련하고 전기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일렉21닷컴의 양승환 대표는 일렉21은 모든 전기인들이 참여하는 개방된 전기포털 사이트로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전기현장실무를 중심으로 사이트가 구성돼 있다고 소개한다.

일렉21닷컴의 가장 큰 특징은 각종 기술자료들을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진자료도 제공함으로써 방문자들이 전기공사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특히 전기인들이 접해보지 못한 신호공사 등에 대한 착공부터 준공까지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또 앞으로 각종 데이터를 동영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기술자들이 검증된 자격으로 이 자료들을 분석한 후 사이트에 올리고 있다.

또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사이버 인터넷사원으로 채용해 일주일에 한번씩 화상회의를 열고 자료의 객관성을 판단,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정보도 교환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렉21닷컴은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구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관련업체의 탄생부터 공사의 수주, 프로젝트의 수행, 준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소개하고 있고, 표준품셈, 물가자료, 샘플견적, 최근 10일간 자재의 실단가 등 견적 작성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전기공사업체들이 실무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각 공정마다 정확한 진척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공사업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개발중에 있다.

이와 함께 전기관련 단체들의 최신 정보들을 일일이 수작업해 사이트에 올림으로써 일렉21닷컴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전기계 뉴스를 모두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다양하고 검증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회원가입시 100케리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는다. 각 자료를 다운받을 경우 1케리씩 빠져 나가고 또 자료를 제공할 때는 그 가치에 따라 10케리 이상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는다. 그리고 일정 이상의 사이버머니를 얻게 되면 각 이벤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혜택을 부여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즉 일렉21닷컴은 일방적인 정보전달이 아닌 개방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진정한 정보공유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앞으로 일렉21닷컴은 사이트 운영외에 공정관리소프트웨어 제작 기업의 네트워크화 사업 등도 펼쳐 기업들의 정보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 한국전기연구소, 창립 23주년 행사 개최

한국전기연구소(소장 : 권영한)가 6월 30일 경남 창원 본소에서 연구소 창립 23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직원 가족들은 연구소내 시설을 견학했으며 연구소 중창단인 칼로스와 직원 자녀 등이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 '76년 재단법인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로 출발한 전기연구소는 오는 2004년까지 300억원

을 들여 중전기기 시험·평가설비를 국제적 수준으로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기연구소는 향후 4년간 총 300억원을 투입, 산업체의 중전기기 성능평가에 필요한 800kV급 초고압 및 63kA의 대용량 연구시험설비 등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기연구소는 지난 3월 경기도 의왕시에 500MVA급 단락시험설비를 준공한 바 있다.

## 대신전선, 생산공장·설비투자 증설

전력·통신케이블 전문업체인 대신전선(대표 : 신홍균)이 생산공장, 설비투자 증설을 마무리 하고 기업 이미지 부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98년 인천시 남동공단에 있던 세광전선(주)을 전격 인수, '99년 9월 지금의 안산시 시화공단으로 공장(대지 5,000평, 건평 3,500평)을 확장·이전하고 상호를 대신전선(주)로 바꿨다.

또 전력선 생산라인도 크게 늘렸다. 나동선류, 절연전선, 제어용케이블 및 특고압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동을 소재로 한 전선 및 케이블을 월 200톤 규모로 증설한데다 알루미늄 전선인 ACSR, ACSR/AW, 22.9kV ACSR-OC, 22.9kV ACSR/AW-OC 등의 설비도 갖추고 한

전 납품자격을 취득했다. 각종 범용전선의 KS 및 형식인 획득도 땀다.

대신전선은 그뿐 아니라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ISO 9000 품질인증도 최근 KETI 품질인증원으로부터 획득했다. 적정 재고 생산을 통해 고객이 원하면 어느때라도 공급 채비가 준비된 셈이다.

대신전선은 또 신생업체 답지 않게 환경중심의 가치창조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무독성 난연케이블, 저독성 난연케이블 및 소방용전선(FR-3, FR-8)의 개발·생산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UL, IEC 등 세계 각국 품질인증제품의 개발에도 박차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고압케이블을 비롯한 근거리통신망



용 LAN케이블 개발도 대신전선이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연구사업 중 하나다.

## 한강기전, 업계최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획득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전문생산업체 한강기전(대표 : 유근영)이 최근 업계 최초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과 KS마크를 획득,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강기전은 지난 2년간 1억여원의 자금을 들여 고효율 제품 개발에 매진, 무부하시 대기전력을 7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코매치그린(COMATCH GREEN) 고효율 UPS'를 개발, 곧 시판할 계획이다.

고효율 제품개발을 이끈 송한근 부사장은 "앞으로 특화된 제품이 아니면 업계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단체수의계약이 사라지면 값싸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제품 개발 취지를 밝혔다.

송부사장은 "소비자들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마크를 확인하고 제품을 써줬으면 합니다. 많은 비용

과 시간을 들여가며 기술개발을 했지만 소비자가 외면한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송부사장은 또 "많은 인증 마크를 획득해도 사후 관리비와 인건비가 많이 들어 중소기업을 위해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강기전은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전직원에게 학자녀 장학금을 주고 있으며 직원들 명으로 각종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혜택이 높아 이직율이 적은 것도 큰 장점이다.

"무한경쟁시대에선 직원이 재산입니다. 모든 기술의 원천은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직원들의 열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한강기전은 앞으로 관수보다는 민수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또 민수시장에서 기반이 닦이면 조만간 코스닥시장에도 등록할 예정이다.

## 전기·계측분야 원전 기자재 국산화 '저조'

우리나라 원전 기자재 국산화율이 6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원전 기자재 국산화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 결과 발표회를 갖고, '99년 6월부터 1년동안 영광 5, 6호기 건설에 투

입된 보조기기 기자재 총 19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국산화율이 평균 66.9%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국산화율을 분야별로 보면, 건축분야 기자재가 91.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토목분야 88.7

%, 배관분야 78.7%, 기계분야 70.5%, 전기분야 64.4%, 핵분야 45.2%, 계측분야 19.9% 순이었다.

특히 핵분야와 계측분야의 국산화율이 월등히 저조, 전체 국산화율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 송병준 박사는 "원전 기자재의 국산화율을 제고시키고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관련 소재·부품산업 등 주변산업의 발전과 뒷받침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원전 기자재 납품업체 64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기술수준을 설문 조사한 결과, 국내 기술기준이 선진국의 93.6%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선진국의 기술수준을 100으로 설정한 뒤, 국내 기술수준을 도입기(배점 20), 흡수기(40),

복제기(60), 자립기(80), 자체 개발기(100)으로 구분해 업체 응답을 평균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배관분야가 98.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토목 96.7, 전기 94.4, 기계 92.6, 계측 88.6, 건축 87.5, 핵 85.0 순이었다.

한전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번 연구는 국내 원전사업의 국산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행됐다"고 전제, "한전과 산업연구원은 이번 연구 후 속과제로 '국제 경쟁력 향상을 통한 해외진출 확대 방안'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산업자원부의 권고에 의해 한전이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정부와 한전은 원전 기자재의 국산화는 물론 해외진출 확대에 높은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영광 5, 6호기 원전 기자재 국산화율 〉

(단위 : 백만원, %)

분 야	건 축	토 목	전 기	계 측	기 계	핵	배 관	합 계
내자분 계약금(A)	1,340	105,829	80,129	25,969	232,636	24,037	91,259	561,199
내자분 국산화금액(B)	1,220	96,224	61,977	14,440	173,466	18,882	73,711	439,920
내자분 국산화율(B/A)	91.0	90.9	77.3	55.6	74.6	78.6	80.8	78.4
외자분 계약금액(C)	0	2,628	16,174	46,752	13,338	17,731	2,375	96,623
총계약금액(D=A+C)	1,340	108,457	96,303	72,721	245,974	41,768	93,634	657,822
국산화율(B/D)	91.0	88.7	64.4	19.9	70.5	45.2	78.7	66.9

## 조명기기 수입 증가 추세

2000년 5월말 현재 조명분야는 수입이 수출을 소폭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KOTIS)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

까지 램프 및 조명기구에 대한 수출입현황은 수입 1억1백30만3천달러, 수출 9천1백53만달러로 수입이 수출보다 9백77만3천달러 많았다.



이는 수입 7천1백70만5천달러, 수출 8천9백16만2천달러를 기록했던 지난해 동월과 비교할 때 수입 41.3%, 수출 2.7%가 증가한 수치다.

램프분야는 수입 6천9백74만1천달러, 수출 6천6백83만5천달러로 집계, 수입이 2백90만6천달러 많다.

조명기구분야도 수입 2천9백19만3천달러, 수출 1천6백2만달러로 수입이 1천5백16만3천달러 늘어 무려 108.1% 증가했다.

반면 안정기분야는 수출물량이 수입보다 30만6천달러 많은 8백67만5천달러를 기록하면서 크게

약진, 국내 조명업체들의 체면을 살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정기분야의 전체적인 수출입 물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수입 18.1%, 수출 5.3% 정도 감소했다.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수출품목은 집어용램프로 올들어 6만7천달러의 수출수요를 보여 향후 수출 가능성을 가늠케 했다.

이외에도 형광램프(1천4백70만3천달러, 40.6%↑) 적외선램프(51만4천달러, 23.9%↑) 등이 수출부문에 크게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도 메탈할라이드램프 등 기술력을 요하

< 2000년도 5월말 램프 및 조명기구 수출입 현황 >

(단위 : 천달러, %)

품 목 명	수 출			수 입			
	1999 (A)	2000 (B)	B/A (%)	1999 (A)	2000 (B)	B/A (%)	
실 드 비 임 램 프 유 니 트	24	41	170.8	120	1,036	863.3	
팅 스 텐 할 로 겐	19,871	17,397	87.5	8,074	10,597	131.2	
백 · 열 전 구	3,930	4,148	105.5	840	733	87.3	
장 식 용 램 프	11,398	11,568	101.5	18	43	238.9	
비 임 램 프	20	15	75.0	121	298	246.3	
집 어 용 램 프	14	67	478.6	144	260	180.6	
기 타	4,866	6,765	139.0	680	580	85.3	
기타필라멘트램프의기타	7,431	6,825	91.8	4,243	4,368	102.9	
형 광 램 프	10,459	14,703	140.6	5,784	9,941	171.9	
수 은 램 프	124	40	32.3	3,232	3,120	96.5	
나 트 륜 램 프	4	-	-	309	403	130.4	
메 탈 할 라 이 드 램 프	538	937	174.2	1,970	3,449	175.1	
기 타	453	768	169.5	17,121	23,538	137.5	
자 외 선 램 프	507	-	-	3,527	4	0.1	
적 외 선 램 프	415	514	123.9	245	417	170.2	
아 아 크 램 프	92	44	47.8	1,212	994	82.0	
부분품	필 라 멘 트 램 프	1,479	1,735	117.3	2,225	1,883	84.6
	방 전 램 프	221	560	253.4	1,803	2,127	118.0
	기 타	535	708	132.3	3,114	5,950	191.1
램 프 류 계	62,381	66,835	107.1	54,782	69,741	127.3	
조 명 기 구	17,620	16,020	90.9	14,030	29,193	208.1	
안 정 기	9,161	8,675	94.7	2,893	2,369	81.9	
총 계	89,162	91,530	102.7	71,705	101,303	141.3	

는 특수분야는 수입이 크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메탈할라이드램프는 수입이 3백44만9천달러를 기록, 지난해 동기대비 약 75.1%가 증가했으며

필라멘트램프 1백88만3천달러, 방전램프 2백12만7천달러, 수은램프 3백12만달러의 수입실적을 보였다.

## EU, 수출 규제 강화

2006년부터 조명기기를 유럽에 수출하려는 업체는 직접 폐기물을 수거해야 하며 재활용 소재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해야만 한다.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조명기기를 비롯해 대·소형 가전제품의 경우 제조업체가 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50~80% 이상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환경규제지침'을 채택, EU 이사회와 의회에 공식 상정했다.

대상품목은 전기·전자제품, 통신기기, 전동완구류, 공구류 등이다.

이에따라 2006년부터 조명기기를 비롯해 대·소형 가전기기는 재활용 비율을 준수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EU 회원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또 2008년부터는 수은, 납, 카드뮴, 크롬 등 6

개 유독물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이같은 EU의 환경규제지침에 대해 유럽, 일본 등의 업계는 규제안이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 EU에 수출되는 제품의 3분의 2 가량이 규제대상품목에 해당돼 이번 조치로 인한 국내 기업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명기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국내 조명기기 제조업체에게 EU는 아직까지 미개척시장이므로 이번 조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형광등에 수은 함유량은 줄이는 것은 물론 재활용 소재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제유가급등! 에너지는 달려입니다.**